관행 벗은 인사안 처리…각종 종법 개정

대종사 · 명사 자동으로 품수
종헌 상충 지적에 공표 관심
타 교구 구성원 자격 제한
복수 추천 인사 투표로 선출
소청심사위원장 승원 스님 등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는 인사안에 대한 격론이 이어져 거수로 투표 방식을 정했고, 복수 추천 건에 한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앞으로 자격을 갖춘 스님이면 대종사·명사 법계를 자동 품수하게 됐다. 다만 해당 종법이 종헌 제28조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제 공포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타 교구 재적승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종법도 개정됐다.

11월 5일 서울 봉은문화회관 2층에서 열린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는 종법 개정안과 인사안이 다뤄졌다.

종회는 종법 개정을 통해 승납 40년 이상으로 종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승려에게 대종사·명사 법계를 자동으로 품수하도록 했다. 다만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승려의 경우 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심우 스님은 "현재 대종사·명사 법계 품서 수지 요건이 충족된 스님이 3300명 이상으로, 매년 대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자격을 갖춘 스님에게 대종사·명사 법계를 자동으로 품수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종정 스님과 전계대화상, 총림 방장 스님에 대해선 새로운 법계를 고민해 다음 회기에 법안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계에 맞는 위의를 갖춰야 한다는 법계위원 스님들의 뜻을 존중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종회는 3독회 끝에 만장일치로 '법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속개한 본회의에서 '종헌' 제28조가 원로회의 권한으로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명시하고 있어, 종법 개정이 무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심우 스님은 "'법계법' 개정으로 대종사·명사 법계가 자동 품수될 경우 공권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승려만 법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라며 "법률 자문 결과 종헌이 명시한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은 유효하며, 개정된 '법계법' 역시 효력이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대진 스님은 "종헌에서 명시한 법계 심의권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종법 개정으로 종헌과 종법의 조문이 상충하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종봉 스님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하위법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총무원 집행부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회는 '법계법' 개정에 따라 '원로회의법' 제5조 6항의 '2급 이상의 법계 심의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원로회의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통과했다. 심우 스님은 원로회의법과 관련해서도 "종헌이 큰 기둥이고, 종법은 실행사항을 담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공포권자가 심사해 공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타 교구 재적승으로 당해 교구 말사 주지로 신규 임명된 스님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산중총회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법원 스님은 "현행 산중총회법은 타 교구 재적승이라 하더라도 해당 교구 말사 주지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산중총회에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산중총회의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구성원 자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수 의원 스님들은 "일부 교구에서 악용 사례가 많다"며 개정 취지에 공감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결제기간 중 한 차례는 구족계 포살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결계및포살에 관한법' 개정안도 만장일치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효명 스님은 "조계종 승가는 율장을 근거로 구족계를 수계함에도 포살은 범망경보살계본으로 행하는 것은 수계만 있고 참회 시스템은 부재한 모습"이라며 "결제기간 2회 중 1회는 보살계 포살, 1회는 비구계·비구니계·사미계·사미니계 포살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정·오심 스님 등은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인데 범망경을 부정하는 듯 보이고, 각 교구본사에서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각 교구본사의 사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선택 규정으로 자구를 변경해 가결했다.

이어 종회는 환풍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소청심사위원장에 승원 스님을 만장일치 선출하는 등 각종 인사안도 처리했다. 특히 결원보다 많은 스님이 추천된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은 열띤 논의가 오갔다.

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인사 선출 시 결원이 생기면 그 후임을 정해 보충을 해왔다. 이는 시비분쟁을 줄이기 위한 중앙종회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진 스님은 "관례가 종법 우위에 있지 않다"며 "결원보다 많은 인원이 추천됐다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제정 스님도 "이의 제기가 있으니 투표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진화 스님은 "관례를 깨고 새로운 원칙을 정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종회는 휴회하고 종책모임 간 의견을 공유했지만 견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속개 후 다시 투표 방식에 대한 격론이 오갔고, 43명의 찬성으로 복수 추천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진성·선문 스님의 사직과 도호 스님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법규위원에는 정오·지우·도완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에는 선우 스님과 진산 스님 임기만료로 추천된 무일 스님과 선문 스님이 단독후보로 각각 선출됐다. 혜민 스님 후임에는 무기명 투표에서 68표 중 41표를 얻은 태설 스님이, 현담 스님 후임에는 46표를 얻은 진산 스님이 선출됐다.

소청심사위원에는 4명의 스님이 추천됐지만, 성로 스님이 인오 스님 추천을 철회하면서 지도·무안·덕산 스님이 최종 선출됐다. 덕암·무안·도일 스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출이다.

종립학교관리위원에는 해량·명진 스님의 임기 만료로 명진·석중·해량 스님이 추천됐다. 명진 스님 후임에 추천된 명진 스님은 단독으로 선출됐고, 해량 스님 후임으로 추천된 석중·해량 스님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 결과 37표를 얻은 해량 스님이 선출됐다.

또 중앙종회는 법만 스님에 대한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법계위원은 법계법 제5조에 의해 총무원장이 중앙종회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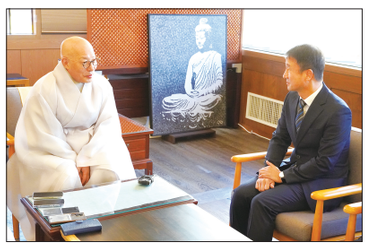
학교법인 동국대 감사 후보자 복수추천 동의의 건에는 도림 스님 후임으로 재안 스님과 성원 스님이 추천됐다.

인사심의특별위원,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 종단미래대비를위한특별위원, 총림실사특별위원 등의 선출은 논의 끝에 의장단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하고 7일 오전 속개하기로 했다. 〈차주상보〉

진우 스님 "불교예산 '선심성' 인식 전환을"

한병도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불교유산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선심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교유산 보존·계승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3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진우 스님은 "최근 한류(K-컬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뿌리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이어져 온 전통문화에 있다. 그 가운데 불교유산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으로, 국가지정 문화유산 가운데 불교유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전체 지방문화유산까지 포함하면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스님들이 앞장서 신앙적 차원에서 불교유산을 보존해 왔고, 신심과 원력으로 계승하고 있다"면서 "고궁 등에는 인력과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원되지만, 사찰 문화유산에는 여전히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진우 스님은 그러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은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나서야 할 일이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내영 기자

전국비구니회, 로터스관 불사 동참

동국대에 기금 3000만원 전달



불교종립 동국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불사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이하 전국비구니회)가 힘을 보탰다.

동국대는 11월 4일 본관 4층 이사장실에서 '전국비구니회 로터스관 건립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부회장 서광 스님,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지정학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장 광용 스님 등 전국비구니회 회장단은 동국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터스관의 건립기금 3000만원을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광용 스님은 "종립대학 동국대의 성장과 위상은 모든 종립학교의 모범"이라며 "동국발전을 위한 로터스관 건립불사에 전국비구니회는 물론 전국의 불자들이 동참해 원만 회향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동화사 주지후보에 5명 입후보

11일 자격심사–14일 산중총회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후보에 홍관·법광·선광·혜범·현장 스님이 등록했다. 동화사 교구선관위에 따르면 11월 4일 주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군위 팔공산 석굴암 주지 홍관 스님, 전 능인학원 이사장 법광 스님, 중앙종회의원 선광 스님, 칠곡 송림사 주지 혜범 스님, 전 대구 보현사 주지 현장 스님이 입후보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11월 11일 회의를 열어 후보자 자격심사 및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한다.

동화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11월 14일 오후 1시 경내 설법전에서 열린다. 김내영 기자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남녀 단기출가학교

쉼, 그리고 시작

수행기간
2025.11.21금 ~ 30일
9박 10일

대 상 출가(체험)희망자, 불교에 관심 있는 성인 남녀
심신이 건강하고, 대중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

모집내용
• 모집기간 : 2025년 10월 6일(월) ~ 2025년 11월 20일(목)
• 수행기간 : 2025년 11월 21일(금) ~ 2025년 11월 30일(일) 9박 10일간
• 모집인원 : 12명 내외
• 접수방법 : 선운사 홈페이지 접수 http://www.seonunsa.org/
• 문 의 : 063-561-1422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 운 사